

안녕! 팔조로3길



강성은 글 | 손수정 그림

책 소개

도대체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엄마와 둘이 살던 유나는 여러 번의 이사 끝에 팔조로3길 6, 파란 대문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던 외할머니 집이었지요. 유나는 새로 살게 된 집과 동네가 마음에 들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것도, 진짜 친구 민지를 사귀게 된 것도 기뻐요. 동네로 이사 온 화가 아저씨와 귀여운 비송 벵크시를 만난 것도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고, 유나네 동네는 재개발을 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면서 엄마와 할머니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지요. 유나는 말없이 가 버린 민지를 만나러 갔다가 의도치 않게 낯선 골목으로 향하는데……. 과연 유나는 민지와 화해하고 엄마, 할머니와 함께 팔조로3길 파란 대문 집의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청어람주니어 '더 나은 세상' 세 번째 시리즈 《안녕! 팔조로3길》은 유나가 팔조로3길 파란 대문 집으로 이사 오면서 겪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재개발은 무엇인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재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동네를 재개발할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의견을 모으면 좋을지 등 어린이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작품이에요.

초등 교과 연계

4-1	사회	3. 지역의 공공 기관과 주민 참여
4-2	사회	1.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작품 키워드

#재개발 #재건축 #주거_환경_개선 #도시_재생 #이사

생각 그물

책을 읽기 전에 '재개발'에 대한 생각 그물을 만들어 봅시다.

재개발

배경 지식 쌓기

● 도시가 오래되어 낡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래 써 고장 난 물건을 고치는 것처럼 오래된 도시도 정비가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고치기로 정했어요. 이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정비 사업을 실행하지요. 정비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등으로 나뉘어요.

● 도시 정비 사업 :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사업 비교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기준	정비 기반 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매우 부족함.	정비 기반 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부족함.	정비 기반 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양호함.
주체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도시공사 등	조합, 건설업자, 사업자, 지자체, 지방도시공사 등	
방식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 설치, 건축물 건설		노후·불량 건축물 철거 후 주택 및 오피스텔 건설
	아파트 공급		
절차 요약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 시행자 지정 → 사업 시행 허가 → 토지 등 보상 → 거주민 이주 → 공사 시작 → 주택 공급 → 공사 마무리 후 입주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 조합 설립 → 사업 시행 허가 → 분양 신청 → 관리 처분 계획 허가 → 거주민 이주 → 공사 시작 주택 공급 → 공사 마무리 후 입주 → 이전 고시	정비 계획 수립, 정비 구역 지정 → 조합 설립 → 안전 진단 → 사업 시행 허가 → 시공사 선정 → 분양 신청 → 관리 처분 계획 허가 → 거주민 이주 → 공사 시작 주택 공급 → 공사 마무리 후 입주 → 이전 고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24. 07. 01. 기준) 참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주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이루어지므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시행돼요. 반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조합을 중심으로 진행되지요. 특히 재개발은 재건축처럼 건물 단위가 아니라 더 넓은 구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기도 하지요.

● 재개발 찬성 vs 재개발 반대

재개발을 하면 깨끗하고 편리한 새 동네가 만들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전과 비교해서 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세 배 이상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지요. 하지만 공사 때문에 떠나 있던 주민들은 돌아오기 어려워져요. 현 집의 가격만큼 보상을 받았지만 새 집에 들어오려면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또 오래되고 낡았지만 추억이 깃든 집과 동네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들과 계속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건물이나 시설이 낡으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른 동네보다 낡고 위험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시설물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곳곳에 벽화를 그리거나 예술 작품을 설치하는 등 환경 미화와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곳도 있지요.

내용 되짚어 보기

● 가로세로 낱말 퍼즐

《안녕! 팔조로3길》을 읽고, 다음 낱말 퍼즐을 완성해 봅시다.

①			③				
							⑦
②				⑤			
			④				
						⑥	
		⑩	⑪				
	⑨						
⑧					⑬		
				⑫			

가로 문제

- ② 이미 있는 것을 더 낮게 하기 위하여 다시 개발함. ‘이사를 다 나가야 ○○○할 수 있잖아.’
- ③ 이리저리 헤매어 돌아다님. ‘할머니랑 엄마가 싸우지 않았다면 유나가 지금 여기서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었다.’
- ④ 자기의 얼굴이나 모습을 사진, 그림 등으로 나타내는 것을 독차지하는 권한. ‘너 화가가 되고 싶다면서 ○○○(이)라는 거 몰라?’
- ⑥ 자기가 사는 곳 밖의 다른 고장. ‘샤론 할머니는 ○○에서 오는 사람들을 반기지 않았다.’
- ⑧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고치는 공사. ‘지금은 ○○ ○○ 정도로 끝나지만 언젠가는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할 거야.’
- ⑩ 아무 때나 늘. ‘할머니가 ○○○ 해 놓는 반찬에서 나는 냄새.’
- ⑫ 한 채씩 따로 지은 집. ‘할머니 집은 붉은 벽돌로 지은 아담한 ○○ ○○이었다.’

세로 문제

- ①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경제, 사회,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키려는 사업. ‘몇 년 전 동네가 ○○ ○○ ○○에 선정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했다.’
- ③ 내버려 둠. ‘얼룩덜룩 색이 바랜 채 ○○되어 있던 벽화들’
- ⑤ 어떤 목적에 꼭 들어맞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서로 의논함. ‘○○을/를 잘하자는 거야.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 ⑦ 소속된 동, 읍, 면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으로, 예전 ‘주민 센터’에서 이름을 바꿈.
- ⑨ 정보를 알리는 글 또는 구호문 등을 적어 걸어 놓은 막. ‘유나도 엄마랑 시장 가는 길에 ○○○을/를 본 적이 있었다.’
- ⑩ 건설사와 계약을 맺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회사. ‘○○○이/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드디어 새 아파트를 지을 건설 회사가 정해졌다는 뜻이라고 했다.’
- ⑬ 신청을 통해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받아 보거나 이용함. ‘나도 ‘구르미TV’ ○○해!’

● 독서 퀴즈

1. 다음 표에서 내용과 일치하는 칸의 숫자를 더하여 몇 점인지 쓰세요. (9~17쪽)

	할머니는 유나 엄마 아빠의 결혼을 반대했었다.	유나는 엄마와 둘이 살 때 이사를 자주 다녔다.	유나는 처음 본 할머니 집이 어색하고 싫었다.	유나와 엄마와 할머니는 생김새가 꼭 닮았다.
o	1	13	17	20
x	36	4	11	46

() 점)

2. 다음 내용을 읽고 **맞게** 생각한 사람을 고르세요. (19쪽) ()

할머니 집은 신기했다. 할머니랑 엄마가 집을 비워 유나 혼자 있는 날에도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다. 뭔가 꼭 차 있는 느낌이 들었다.

할머니는 엄마와 다르게 버리는 것이 없었다. 집 안은 오래된 물건들로 가득했다. 색이 바랜 소파, 과연 작동을 할까 의심이 갈 정도로 옛날에 만들어진 냉장고, TV, 에어컨. 탁자에는 각종 전단지, 할머니 돋보기, 뜨개질거리, 간식 바구니, 일정이 빼곡하게 적힌 달력이 있었다. 그리고 벽에는 커다란 벽시계와 함께 어버이날 유나가 그린 할머니 그림이 붙어 있었다.

또 할머니 집에는 여러 가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반듯하게 개킨 빨래에서 나는 냄새, 할머니가 수시로 해 놓는 반찬에서 나는 냄새. 엄마는 옛날 집에 스며든 세월의 때 냄새라고 했다. 유나에게는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냄새였다.

- ① 지수 : 엄마는 오래된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
- ② 지민 : 할머니는 오래된 물건을 바꾸고 싶어 해.
- ③ 해든 : 유나는 세월의 때 냄새를 싫어해.
- ④ 상아 : 유나는 할머니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어.

3. 김약국 할머니가 한숨을 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6~37쪽)

“그래서 어찌기로 했어? 그 집 계약할 거야?”

“몰라. 그렇게 재개발은 왜 한다 그래서.”

얼마 전, 김약국 할머니는 우리 동네에 집을 보러 왔다. 곧 이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약국 할머니도 재개발이 확정된 4구역 주민이었다.

“그때 우리도 도시 재생 사업인가 그거 계속한다고 했으면 이 난리는 안 쳤을 텐데.”

김약국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자** 참기름 할머니가 말했다.

“말년에 새 아파트에서 살고 좋지 뭘 그래.”

“애들이야 신났지. 나야 이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사 생각만 하면 아주 속 시끄러워 죽겠어.”

4. 유나가 떠올린 **그날** 일은 무엇인가요? (56~57쪽)

“아저씨, 화가 아저씨 맞죠?”
그러자 아저씨가 유나를 바라보았다.
“어? 너 그 꼬마 화가구나!”
아저씨도 유나를 알아본 듯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유나는 가끔 벽화 그리던 날을 떠올리고는 했다. … 화가 아저씨의 가게 안에 들어온 유나는 **그날** 일을 떠올리며 자기도 모르게 싱긋 미소를 지었다.

5. 다음 내용을 읽고 **잘못** 이해한 사람을 고르세요. (65, 67쪽) ()

“엄마, 이게 화만 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4구역이랑 1구역 재개발 들어가면 남는 건 여기랑 2구역인데, 2구역은 벌써 시작했대더라고.”
그게 뭐? 여기는 재개발 이야기 안 들었을 것 같냐? 근데 여기 사람들은 다 반대했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또 바뀌었잖아. 4구역이 이렇게 빨리 재개발에 들어갈 줄 누가 알았어? 지금 타이밍이 좋대.”
…
할머니가 탁자에 놓인 종이 문치를 집어 흔들어 댔다. 탁자 위에 켜켜이 쌓인 종이에는 ‘재개발 신청 사전 검토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다.
…
“이게 나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소리 마라. 내가 모르는 줄 아니? 재개발 그거 동네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차지한다더라.”
할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해야지. 나는 뭐 생각이 없는 줄 알아?”

- ① 다연: 엄마는 재개발에 찬성하는 입장이야.
- ② 하진: 할머니는 재개발을 반기지 않는 동네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 ③ 세희: 재개발은 유나네 집에는 좋은 일이지만 동네 전체에는 나쁜 일이야.
- ④ 은찬: 재개발 과정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6. 아저씨는 왜 유나가 동네를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했나요? (82~84쪽)

“오늘 동네 구경 잘했어. 유나는 이 동네를 많이 좋아하나 봐.”
“제가요?”
“응, 그러니까 구석구석 모르는 게 없지. 사랑할수록 많이 보이는 법이거든.”
아저씨의 말이 맞았다. 유나는 그전까지 자기가 사는 동네에 별로 흥미가 없었다. 자주 갈 수 있는 편의점, 목욕탕 그리고 버스 정류장만 알면 끝이었다. 여기로 와서야 유나는 집집마다 누가 사는지, 가게마다 무엇을 파는지 궁금해하고 잘 알게 되었다.

7.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요? (92쪽)

엄마가 4학년이었을 때였다. 엄마의 생일날, 열큰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온 할아버지가 엄마 앞에 ○○○을/를 내밀었다. 엄마는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은 공주 인형이었다.

()

8. 다음 내용에서 유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01~103쪽)

“넌 어떻게 네 생각만 하니? 여기가 다 집주인들만 사는 줄 알아? 참기름네처럼 월세 사는 사람들은 생각 안 해? 그 사람들은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도 없어.”

엄마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러는 엄마는 친구들 생각밖에 안 해? 나야 괜찮아. 나도 이 집에서 태어났고 이 집에서 자랐어. 엄마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이 집 좋아. 하지만 유나 생각을 해 봐. 이 집이 언제까지 온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동네 상황은 어떨고. 여기도 벌써 빈집투성이가 되어 가는데. 유나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 줘야지.”

“그만 좀 해!”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할머니와 엄마가 놀란 얼굴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왜 내 핑계 대? 내가 언제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고 그랬어? 다들 왜 그래? 왜 자꾸 이사 얘기만 하는 거야? 난 다시 이사 가기 싫어. 떠돌아다니고 싶지 않다고!”

9.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속담은 무엇인가요? (122쪽)

‘역시 할머니와 엄마 싸움은 _____야.’

저녁을 먹은 뒤, 엄마는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선풍기 바람을 쐬며 TV를 보았다. 할머니가 주는 수박을 넉죽넉죽 받아먹으면서.

‘엄마가 할머니를 모시는 게 아니라 아직도 할머니가 엄마를 돌보는 것 같아.’

두 모녀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유나가 미소 지었다.

[속담] 다투었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 곧 사이가 다시 좋아지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0. 민지가 검색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30쪽)

민지는 재빨리 ○○○을/를 검색해서 휴대 전화를 유나 앞에 내밀었다. 화면 속에는 여러 벽화 사진과 함께 “정체불명의 화가 ○○○, 도시의 거리와 벽과 다리에 그림을 그리다.”라는 기사가 적혀 있었다.

“화가가 꿈 맞아? ○○○도 모르고.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이름이 요상해서 사람 이름이라고는 생각 못 했지. 오호, 역시 이민지!”

[설명] ○○○은/는 1990년대 이후로 활동 중인 영국의 가명 미술가 겸 그래피티 아티스트, 영화감독이다. ○○○은/는 자신의 예술 작품을 공개적인 장소에 전시한다. ○○○의 작품은 전 세계 도시의 거리, 벽, 다리에서 볼 수 있다.

()

생각 나누기

1. 유나는 할머니 집을 좋아합니다. 추억이 깃든 헌 집과 설레게 하는 새 집 중 나는 어떤 집을 더 좋아하는지 자신의 생각과 이유를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유나는 할머니 집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다. 할머니 집은 붉은 벽돌로 지은 아담한 단독 주택이었다. 벽돌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지금도 튼튼해 보였다. 한 평 남짓한 마당에는 옹기종기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오른쪽으로 나 있는 계단을 오르면 빨랫줄이 늘어서 있는 옥상도 있었다. 할머니가 빨래를 널어놓는 동안 유나는 옥상에 놓아둔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는 했다.

남았지만 튼튼하고 작지만 있을 것은 다 있는, 할머니 집은 할머니를 닮아 있었다. 몸집은 작지만 언제나 당당하고, 말투는 투박하지만 유나에게만큼은 친절하고 따뜻한 할머니. (13~14쪽)

2. 사는 동네와 건물에 따라 친구들끼리 편을 가르거나 따돌리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이런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이유를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유나야, 나 우리 동네 재개발 확정되었다고 했을 때 말야. 방에서 엄마 몰래 펑펑 울었어.”

“왜? 서운해서?”

“아니, 기뻐서.”

민지가 잠시 뚝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다.

“학원 애들 나 은근히 따돌린다. 내 앞에서 대놓고 말은 안 하는데, 분위기 보면 알잖아. 나 후진 동네에서 왔다고 그러는 거야.” (46~48쪽)

3. 민지와 엄마, 아저씨와 할머니 등 동네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다릅니다. 여러분이 팔조로3길 주민이라면 재개발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자신의 생각과 이유를 쓰고 친구들과 토론해 보세요.

유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민지는 죽어 가는 동네가 싫어서 빨리 새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다. 새 건물들이 높이높이 솟아 있는 곳들이 훨씬 멋있다고 했다. 엄마도 언제까지 낡은 동네에 살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동네가 좋아서 온 아저씨 같은 사람도 있었다. 할머니처럼 추억이 가득한 집에서 언제까지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유나는 무엇이 맞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112쪽)

생각 펼치기

화가 아저씨는 좋아하는 동네를 찾아다니며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을 가져 본 적 있나요? 우리 동네에는 어떤 전설이나 이야기가 있는지, 동네의 풍경은 어떤지 등 사람들에게 우리 동네를 소개해 봅시다.

“유나야, 여기 멋지다. 저 그림들 다 아저씨가 그린 거야?”

“응. 아저씨는 우리 동네처럼 오래된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린다. 벽화도 그리고.” (130쪽)

(그림으로도 표현해 보세요.)

정답 확인

● 가로세로 낱말 퍼즐

①도			③방	황			
시			치				⑦행
②재	개	발		⑤협			정
생			④초	상	권		복
사						⑥외	지
업		⑩수	⑪시	로			센
	⑨현		공				터
⑧보	수	공	사		⑬구		
	막			⑫단	독	주	택

● 독서 퀴즈

- 45
- ④ 상아: 유나는 할머니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어.
- 재개발이 싫어서, 재개발 안하기를 바라서, 이사 가고 싶지 않아서 등
- 벽화 그리는 활동을 하다가 아저씨에게 화가라는 소리를 들었다, 벽화를 그리며 유나를 만났다, 유나와 친해졌다 등
- ③ 세희: 재개발은 유나네 집에는 좋은 일이지만 동네 전체에는 나쁜 일이야.
- 아저씨에게 알려 주고 소개해 줄 만큼 동네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어서 등
- 못난이 인형
- 엄마와 할머니가 싸우는 게 싫고 불안했다, 다시 이사를 가고 싶지 않았다, 재개발이 싫는데 사람들이 재개발 이야기만 해서 기분이 안 좋았다 등
- 칼로 물 베기
- 뱅크시